

# 제3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시상식 개최

### 이준호 작가 '조선사람 히라야마 히데오' 선정... 상금 5000만원 수여

고창군이 7일 오후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제3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시상식은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 회 군의장 등 기관단체장, 문학인, 고창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수상작은 이준호 작가의 '조선사람 히라야마 히데오'가 선정됐고,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됐다.

이준호 작가는 1993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와 1994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30년 차의 중견 소설가이다. 지난해에는 단편소설 '10시 20분에 방영하는 9시 뉴스'로 제15회 현진문학상 추천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3회 고창신재효문학상에 당선된 이준호 작가의 장편소설 '조선사람 히라야마 히데오'는 '히라야마 히데오(신민규)'라는 고창사람을 창조해내 식민지 시대 조선의 젊은이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여정이 단지 그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었음을 환기시키는 소설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다산복사에서 3월 7일 출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 회복, 조선의 독립이라는 함축적 의미로 담아내 새롭게 의미화 하였다"며 "제3회 고창신재효문학상을 수상한 이준호 작가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신재효문학상은 고창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창작 장편소설을 공모·시상하여



고창군이 7일 오후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제3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수상작은 이준호 작가의 '조선사람 히라야마 히데오'가 선정됐고,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됐다.

영화·드라마·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기반 마련으로, 고창을 문화관광자원화 하고자 2021년 제정됐다. 제1회와 제2회 수상작은 김해숙 작가의 '금

파'와 박이선 작가의 '염부'가 영예를 안았다. 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작품을 공모 중에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제8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성료

### 서인에 새 대상 수상... 입상자 남원시 주관 행사 시니어 모델로 활동

남원시와 전민일보가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공동 주최하고 시 노인복지관이 주관한 '제8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지난 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대회는 60세 이상 여성 중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삶에 감동적 이야기가 있는 어르신을 선발하는 대회로, 올 대회에서는 외국인 및 다문화여성에게 특전을 부여하면서 전국에서 총 43명이 서류를 접수했으며,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16명이 본선에 참가했다.

역대 수상자와 함께하는 ES시니어 모델쇼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는 부시장, 의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외국인 참가자까지 추가된 이번 대회에서는 아일랜드전통춤, 라인댄스, 시낭송, 기타 연주, 장구연주, 노래 등 다양한 장기자랑을 선보이기도 했다.



수상자는 서인에(인천광역시)씨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 이동순(서울특별시), 은상/우정상 김영미(경기도 시흥시), 동상 동추(중국 길림성), 특별상(국민연금상) 레일리 앤 페트리샤(아일랜드), 전민일보상에 남영자(화성시)씨가 수상했으며, 본상수상자(우정상 제외)와 참가자 전원에게도 찬가상이 주어졌으며, 입상자는 앞으로 1년 동안 시 노인복지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황리 마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를 맞아 전주를 방문한 국내외 영화인들에게 전주 맛을 선보인 한식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맛을 국내·외국인 영화 관계인을 대상으로 △2일 전주10미(味)김밥 조리체험 △3일 전주비빔밥 조리체험 △4일 전주비빔밥 조리체험 및 전통주 시음회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2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인 김밥을 전당의 노하우로 재해석해 전주10미(味) 콩나물이 듬뿍 담긴 '전주10미(味) 김밥'을 만들어 맛보는 조리체험이 진행됐다.

이어 3~4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전주비빔밥'을 만들어보고, 4일에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하는 특별한 이벤



트를 함께 운영해 풍성함을 더했다.

특히, 시음회는 전통주의 맛과 향을 더해주는 다양한 한식 인주를 선보여 영화제를 찾은 외국인들은 물론,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인 민성욱·정준호 등에도 큰 호평을 받았다.

김도영 원장은 "많은 외국인 배우들이 전당을 찾아 전주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한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당과 전주 음식이 세계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문성 기자

# 파리올림픽 참가 태권도 국제심판·코치 캠프 태권도원에서 개최

### 국제심판·58개국 국가대표 지도자 참여 올림픽 경기 규칙·경기 진행 사전교육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4 파리올림픽 참가 태권도 국제심판·코치 캠프'가 11일부터 15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태권도원은 지난 2016년 5월 'WT 중앙훈련센터'로 지정되었고, 2023년 7월에는 중앙훈련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태권도

진흥재단과 WT, 대한태권도협회, 전라북도, 무주군 5자가 참여하는 'WT 중앙훈련센터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파리올림픽 참가가 확정된 태권도 국제심판 26명과 58개국 국가대표 지도자들이 참여, 파리올림픽을 대비한 심판 사전 교육과 경기 방식 교육 등이

진행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보다 완벽한 올림픽 경기 상황 구현을 위해 WT 공인 올림픽 겨투기 코드(3개)와 전자호구 시스템(PSS), 비디오 판독 시스템(IVR)을 모두 갖춰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캠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최초 도입되어 이번 파리올림픽 태권도 경기에도 사용되는 4D replay system을 설치하여 완벽한 경기 상황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12일에는 WT 임시 집행위원회 회의가 태권도원 일련회에서 진행되며 2025년 그랑프리챌린지대회 개최지 발표를 포함한 중요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 참가의 최종 여정인 이번 캠프가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히 태권도원이 WT 중앙훈련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 태권도 교육과 수련의 최적화된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2023년 12월 태권도원에서 가진 WT 국제심판 실기교육 장면.

# 국립전주박물관, 18일 '계절에 드리는 배형숙의 舞化'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18일 15시 박물관 강당에서 '계절에 드리는 배형숙의 舞化' 공연으로 가야금병창, 수진춤, 농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48호 예기무 이수자이며, 제24회 국창관습특선생을 주제로 한 전국국악대전에서

종합 대상(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한 배형숙씨가 기획한 공연으로 전통무용의 절정인 가야금병창, 고창농악 등 전통 공연예술의 대표 장르를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 공연은 8일부터 누리집에서 예약해야 관람 가능하다. /장문성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